

#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정책과 이 진행위에 대한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충북지역 이전기업을 중심으로-

정기만\*, 이은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석사과정

e-mail:kmjeong@ut.ac.kr

## A Study on Stock Market Reactions to the Relocation of Firms from Capital Area to the Chungbuk Province

Kimann Jeong\*, Eun-Ju Lee\*\*

\*Dept of M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Matser's Course in Dept of M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 요 약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은 80년대 들어서 심화된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투자 촉진 목적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 전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가 제정 시행된 결과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다. 충북지역 역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 한 노력 결과, 2000년 이후에 충북으로 이전한 총수는 약 170여개 기업 정도가 되었다. 이들 기업은 업종별이나 지역별 등과 같은 그 구성 비율로 볼 때 고르지 못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지역별 이전기업 수를 보면 충주 46개, 청원 28개 기업으로 주로 충북 북부지역과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고 영 동과 보은 등의 남부권으로 이전한 기업은 거의 없어, 균형 개발 차원에서 남부 3군(옥천 포함)에 대 한 충북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1960년대 이후에 지속되어온 우리나라의 고속성장 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산업, 경제, 교육, 문화 등 수도권과 지방에 큰 격차를 만들었고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정도로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는 바 기업의 지방 이 전도 그러한 정책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도 권 규제완화 방법의 하나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 우 세계·금융·배후도시 개발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 진대책」 등을 문헌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충북 지역 의 산업 및 경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기 업의 충북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시장 분석하 고자 한다.

기업 이전의 파급효과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주제 로 Woodward(1992), Bartik(1985), Calzonetti & Walker(1991), Losch(1956), Weber(1929), 김갑성 외 (2003), 박종화(2003)의 연구는 교통, 노동력, 교육여 건, 정책 환경, 특히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생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기업 입지 연구와 파급효과에 관한 논의가 상호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구교준·조광래 2008).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선행연구와 다른 각도로 충북지역 경제 발전방안을 위해 기업에 초점 을 두고 수도권 소재 기업이 충북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업의 이전 전·후 증권시장반응을 연구하여 기업과 지역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1 주요 이전 지원제도

정부는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

를 위해 1999년에 기업지방이전 촉진대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8년의 지방투자기업고용보조금 제도로 관련 정책은 이어졌다.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방투자 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보조금지원, 세제 지원, 금융지원, 행정지원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지자체 별로 입지, 자금, 판매 지원 등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지방의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의 보조금으로 대표적인 투자유치 지원제도이다.

[표 1]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제도

지원제도	내용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입지, 설비투자 지원, 교육훈련 지원 보조금 등이 있음.
세제지원	지방이전기업에게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 및 감면함.
금융지원	지방이전 기업에 한해 장기 저리의 대출지원제도를 운영함(한국산업은행)
중전부지 매입지원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부지를 용이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매입지원제도를 실시함(한국주택도시공사).
지방투자 행정지원	지방투자포털정보망인 'COMIS'를 운영하여 지방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권역별 12개의 공장설립센터를 통해 지방투자 공장설립 업무를 대행함(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11). 대기업 지방유치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활성화 방안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시 특정 요건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이전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장, 본사 및 연구소를 각각 또는 전부 이전하여 상시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것이 필요한데, 먼저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역전략 및 선도산업, 특화업종에 해당되거나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여야 하고, 신규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

원의 10% 이상인 기업으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시고용인원이 30인 미만인 수도권 기업이 기업군을 형성해 집단화하여 이전함으로써 보조금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나,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수도권 소재 기업이 시설 전부를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보조금 종류로는 입지, 설비투자, 교육훈련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전할 지역을 일반지역, 수도권인접지역, 지원실적저조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원범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기업규모를 나누어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지원하는 보조금 중 “입지지원”은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입지 지원 보조금의 경우 수도권의 기존 사업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부지확보비용을 지원하고, 정상 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최대 65%까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인근 동일면적의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을 초과하거나 다른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표 2]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기준

지역 분류	지원 유형	지원범위			지원금액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입지 지원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20%이내	입지투자금액의 40%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70까지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 (전략·선도·특화업종은 7%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 (전략·선도·특화업종은 9%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0%이내 (전략·선도·특화업종은 12%이내)	
	교육 훈련 지원	6개월×60만원 이내/1인당	6개월×60만원 이내/1인당	6개월×60만원 이내/1인당	
수도권 인접 지역	입지 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15%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50까지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3%이내 (전략·선도·특화업종은 5%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 (전략·선도·특화업종은 7%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 (전략·선도·특화업종은 9%이내)	
	교육 훈련 지원	6개월×60만원 이내/1인당	6개월×60만원 이내/1인당	6개월×60만원 이내/1인당	

지원 실적 저조 지역	입지 지원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 의 30%이내	입지투자금액 의 45%이내	지방자치단 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80까지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 의 7%이내 (전략·선도 ·특화업종 은 9%이내)	설비 투자금액의10 %이내 (전략·선도· 특화업종은 12%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5%이내 (전략·선도· 특화업종은 17%이내)	
	교육 훈련 지원	6개월× 60만원 이내/1인당	6개월× 60만원 이내/1인당	6개월× 60만원 이내/1인당	

자료: 지식경제부(201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2.2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및 보조금 지원 현황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782개의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였으나, 209개의 기업체만 보조금 지원을 받아 이전하는 기업 9개당 1개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고, 보조금 수혜율은 2005년 18.3%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7%까지 감소하였다.(채성주, 2012)

[표 3] 연도별 보조금 지원업체 및 이전업체수

종류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수도권 이전업체		180	268	339	509	486	1,782
보조금 수혜업체		18	49	52	56	34	209
보조금 수혜율		10.0%	18.3%	15.3%	11.0%	7.0%	11.7%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2009

3. 충청지역의 기업 경영환경

3.1 충청지역 현황

충청의 경제규모는 GRDP 3.1%로 31조 310억원을 소유하고 있다. 기업체수는 대기업 60개, 중소기업 6,974개로 총 7,034개의 기업체가 충청에 있으며,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4.8%, 광공업 37.8%, 서비스업 등 57.4% 등으로 분포되어져 있다. 충청지역은 교통 시설 개선에 따른 교통기반확대, 수도권 접근성 향상, 지속적인 수도권 구제, 지방자치 실시 후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기관, 기금·펀드 조성,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하여 1980년대 럭키금성, 금성사 공자, 1990년대 현대전자, 텔슨전자 공장, 2000년대 LG화학, SK에너지 등의 대기업을 유치하였다.(김진덕, 2012)

3.2. 지역별·업종별 충청 이전기업 현황

충청의 지역별·업종별 수도권 이전기업 현황을

보면 청주는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전자부품 분야 전반에서 특화도가 높게 나타났다. 충주는 1차 금속 분야에서의 특화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식·음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에서도 특화를 이루었다. 제천은 의약품 기업의 특화 입지도가 특별히 높고, 식·음료 분야에서도 특화 입지도가 높은 편이다. 청원은 전자부품 분야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전기장비 제반 분야에서 특화도가 높은 편이며, 음성은 식·음료 분야의 특화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비금속광물과 금속가공제품에서도 특화를 가진다. 증평은 전자부품 분야에서 특화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단양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특화 산업군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홍성호, 2012) [표 4]에서 충북 전체 업종별 기업체 수를 보면, 대체적으로 전기장비분야와 기타기계 및 장비 분야가 많고, 의료기기나 컴퓨터 등의 업종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4] 업종별 이전기업 수

업종	기업체수	비율
식·음료	16	10%
종이제품	2	1%
기타섬유제품	2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5	9%
의약품	15	9%
의료기기	1	1%
광학기기	2	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8	5%
비금속 광물제품	7	4%
1차 금속	9	6%
금속가공제품	15	9%
컴퓨터	1	1%
기타기계 및 장비	21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7	4%
반도체 디스플레이	7	4%
전기장비	25	15%
기타제품	2	1%
운송장비(항공기)	2	1%
원료재생	1	1%
서비스업	3	2%
건설	1	1%

자료: 충북발전연구원, 2012 재구성

지역별 이전기업 수를 보면, 충주 46개 기업이전과 청원 28개 기업이전으로 충주가 충북 전 지역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원이 17%, 음성, 제천이 각각 13%씩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동과 보은은 0개의 기업체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충북 이전기업이 북부권 및 중부권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남부권으로는이전한 기업이 거의 없어, 균형 개발 차원에서 남부 3군(옥천 포함)에 대한 충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성호, 2012 재구성).

[표 5] 지역별 이전기업 수

지역	기업체수	비율
영동	0	0%
옥천	4	2%
보은	0	0%
청원	28	17%
청주	16	10%
증평	8	5%
괴산	6	4%
진천	10	6%
음성	22	13%
충주	46	28%
제천	22	13%
단양	1	1%

자료: 충북발전연구원, 2012 재구성

#### 4. 충북지역 이전 기업의 증권시장 분석: 후속연구

본 연구는 충북지역 이전 기업의 증권시장을 분석하고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 한 후 거래량과 주가가 얼마나 변동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한 분석으로 충북지역에 기업유치가 기업에 이익을 가져오는 지 여부를 따져보고 충북지역의 수도권 기업유치를 활성화시키고자 함에 있다. 이에 따른 실증연구는 후속 연구에서 계속할 예정이다.

#### 5. 결론

정부의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경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지방이전 현상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이는 정부 및 지자체의 세제지원, 설비지원, 입지지원, 보조금 지원정책 등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유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보조금 지원등으로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은 이전 후 과연 기업의 이익이 향상되었는지의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본 연구는 상장기업을 토대로 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하여 이전 후 시장성을 알아보고 주식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본 연구를 통해 충북지역의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충북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 및 지방의 생산 및 고용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충북지역에서는 중부고속도로를 개통한 후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의 공장용지면적이 증가했고, 충북 GRDP도 꾸준한 증가가 나타났다. 또한 충북지역의 고속도로 개통 후 대기업 유치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 1980년대는 럭키금성 청주공장, 금성사 청주반도체 공장이 입주하였고, 1990년대는 현대전자 청

주공장과 텔슨전자 청주공장 입주하였고 2000년대는 LG화학, 오창테크노파크, SK에너지 청주공장, 현대중공업 음성공장 등의 대기업들이 유치되었다. 이에 접근성 개선을 통한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충북지역의 경제성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기환(2009),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의 주요내용과 정책과 과제”, 한국산업단지공단.
- [2] 김진덕(2011), “접근성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2)”, 충북발전연구원, pp.1-2.
- [3] 김진덕(2011), “충북 경제 성장요인과 발전전략”, 충북발전연구원 보도자료.
- [4] 김태현(2009),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역경제 -대전·충청권을 중심으로-”, pp.1-3.
- [5] 문문철(2012), “지방의 지방투자결정요인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 [6] 이종수(20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착실태에 관한 연구, pp.6-7
- [7] 채성주(201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충북발전연구원 단행본, p.14.
- [8] 홍성호(2012), “충북 이전 수도권 기업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충북발전연구원, pp.4,18-20.
- [9] 한국산업단지공단(2010), “지자체별 기업유치 지원제도 비교 분석”, pp.1-12
- [10] Bartik, T. J(1985), "Business Location decisions in the United States: Estimates of the effect of unionization, taxes,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states",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 3.
- [11] Weber, A.(1999), *Theory of the Location of Industrie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12] Woodward, D.(1992), "Locational determinants of Japanese manufacturing start-ups in the U.S. *Southern Economic Journal*, 58.